

第22回 全国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民俗놀이

立石 줄다리기

때 : 1981. 10. 22 - 24

곳 : 仁川公設運動場

全 羅 北 道

—살기좋은

全北建設—

人事 말씀



새時代 새文化 暢達의 旗幟아래 由緒 깊은 港都 仁川에서 第22回 全国民俗藝術 競演大會가 열리게 된것을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全北은 馬韓 百濟文化에 이어 李朝文化의 發祥地로서 有形 無形의 많은 文化財를 保全하고 있을 뿐 더러 湖南平野의 農耕生活에서 얻어진 固有民俗과 農謠가 여러곳에 散在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全北道에서는 湖南穀倉을 이룬 金堤地方의 「月村立石 줄다리기」民俗놀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立石 줄다리기」는 百濟時代때 碧骨堤를 始築后 이地方에 세워 놓았다는 선돌(立石)을 中心하여 인근 住民들이 동아줄을 만들고 男·女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는 民俗으로 農耕生活과는 밀접한 關係를 가진 놀이입니다. 아무쪼록 「立石 줄다리기」를 감상 하시면서 農道全北을 보다 情답게 理解해 주시고 民俗藝術의 發展에 積極 聲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年 10月

全羅北道 知事 趙 澈 權

概 要

立石은 全羅北道 地方文化財 民俗資料 第7号로 1974年 9月 27日字로 指定된 貴重한 民俗이다.

선돌(立石)의 現狀은 花崗石으로 되어있는 네모꼴의 石柱로써 地上高는 210cm이며 周圍는 上段이 140cm이고 下段은 200cm의 크기로 金堤郡 月村面 事務所앞 네거리 路邊에 서있다.

作者, 年代는 末祥이나 百濟時代에 始築하였다는 著名한 碧骨堤를 쌓은 후 세워진 記念物 장승이라고도 伝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 줄다리기의 民俗이 있는데 줄다리기의 始源도 모를 일이나 아뭏든 아득한 옛날부터 이 地方의 唯一한 協同과 団合을 기르는 大衆民俗놀이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이 고장은 稻作文化의 發祥地로써 農耕과 直結되는 民俗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데 立石줄다리기도 例外는 아니다.

年年히 陰 正月 보름날밤 望月이 동녘에 떠오르면 줄다리기는 始作된다.

정초에 農樂隊들은 農樂을 치며 동네 家家戶口를 순방하면서 乞粒에 나선다. 乞粒된 財物은 줄다리기의 경비로 사용한다. 인근주민들은 2.3일 전에 벗단을 모아서 여러개의 동아줄을 꼬아 男性의 줄과 女性의 줄을 들이는데 技能者들은 큰 나무가지에 줄을 걸어놓고 들인다. 이때 歌唱保有者의 줄들이 民謠가락이 흥겹게 나오고 주변에서는 農樂이 신나게 울려 퍼진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立石에 旧줄이 감겨져있는 것을 풀러내고 주변 (堂山)을 깨끗하게 소지해 놓아둔다. 물론 줄다리를 한 새줄을 감아주기 위한 것이지만 立石이 完全히 裸體가 되는 것은 年中을 통해 이날 뿐이다.

줄다리기에 祭主(村長)의 선포로 시작되는데 部落對抗이 아니고 또한 주거지의 제한없이 어디까지나 男性對 女性의 대결장인 것이다. 이게 이곳 줄다리기의 특징의 하나이다. 줄당길때 머리를 딴 총각은 女性편이 되기때문에 재미스런 장면이 일어나기도 한다. 人員數의 제한은 없으나 줄의 길이는 제한이 있다. 女性이 이겨야 豊年이 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立石의 높이대로 줄이 감아져야 豊年이 든다는데서 줄의 제작 과정에서 사전 조정이 이루어진다. 줄다리가 끝나고 立石에 줄을 감을 때 또 한차례 民謠가 나온다. 줄이 다감아지면 바로 堂山祭 즉 立石(堂山)앞에 祭床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單獻(祭主~村長), 有祝으로 行한다. 농사가 시작되는 새봄에 豊年을 기원하고 상시 災厄을 지켜주도록 기원하는 堂山祭이다. 제사가 끝나면 줄당긴 사람이나 농악대원들은 飲福을 하고 立石을 돌면서 農樂과 群舞로 한판 허튼 멋으로 지새운다.

이러한 祖上의 열과 슬기가 담겨져있는 傳統文化를 이어받아 어떠한 難關이 닥쳐와도 굽이지 않고 특히 倭政下의 彈壓도 물리치고 한번의 결함도 없이 오늘날까지 繼承시켜 왔다는 것은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立石 줄다리기 내용

① 줄드리기

旧正初에 농악대가 걸립한 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줄다리기는 시작된다. 보름 2.3일 전부터 인근주민들은 벼단을 모은다 옛날에는 벼단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일벼 계통이 되어서 벼단을 모은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벼단이 모아지면 기능자들 7.8명은 立石 옆에 있는 거목가지에 걸어놓고 줄드리기를 한다. 당일 아침부터 할 때도 있고 안날부터 할 때도 있다.

줄드리기 작업이 시작되면 농악대도 나와서 농악을 쳐준다. 그리고 가창 보유자는 줄드리기 노래가락을 부르며 마냥 흥겨운 작업장이 된다. 줄의 규모는 男·女 다같이 길이가 66尺에서 70尺정도이고 폭은 직경 40cm정도이다. 다만 男·女의 고에서 틀린다 女性줄의 고(구멍)는 男性줄의 고가 귀여질 정도로 커야하고 男性줄의 고(구멍)는 말목으로 비녀질이 될 정도로 크기면 된다. 줄을 드리는데도 기술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기능자가 따로있다. 금기 사항으로는 어느 민속이나 마찬가지로 상제나 생산한 사람들은 부정(不淨) 탄다하여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당일에는 立石에 감겨있는 구줄을 풀어내고 주변을 깨끗이 소제해 놓는다. 옛날에는 이 구줄이 피부병 같은데 약효가 있다하여 주민들이 가져갔다 한다.

* 줄드리기 노래 *

1. 달아 달아 밝은달
(후렴) 어여로 줄드리기야
보름달은 밝은 달이나
한달크고 적은것을
그믐초생을 재촉한다.
쫓각달 반달달은
인간 명색을 재촉하네
자라등에다 저달을 싫고
우리 고향을 같이가세
남자가 이기면 흥년이든다네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들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륵님 전에다 비나이다
백일 정성을 드린다면
아니된단 일이 없을것을
공든탑이 무너지며
힘든 냇이 꺾어질까
등장가자. 등장을 가세
무삼일로 등장을 갈까
늙은 양반은 죽지를 말고
젊은 소년은 늙지를 마라.
하느님전으로 등장을가세
여-로 줄드리기야.

줄놀이와 고놀이



망월이 동녘하늘에 떠오르면 먼저 농악을 울려 판을 어울린다. 중앙에는 龍旗를 앞세우고 제주, 축관 좌우에 旆旗가 서서 입장을 하고 東쪽에서는 男性팀이 농악을 선두로 햇불, 오색기는 뒤에 따라서 기세를 울리며 입장한다. 이와동시에 西쪽에서는 女性팀이 농악팀을 앞세우고 보무도 당당하게 男性팀과 같은 行列로 결전장으로 진출한다. 여기서 男性팀과 다른것은 貞節婦人 두사람이 줄의 좌우에 각각 회초리를 들고 따라나온다. 이것은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一名 禁亂使라고 한다. 인근동에서 가장 정절로 알려진 부인을 줄다리가 끝나면 다음해의 禁亂使를 선출해 놓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팀 구성은 총각은 女性팀으로 되어있다. 옛날같으면 맹기단 도령들은 女性팀에 속한다. 이 경기는 部落對抗이 아니고 男性對女性의 대결장이다. 따라서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인원수도 제한이 없다.

男性줄과 女性줄이 중앙에서 만나면 본부석에 人事를 드린다. 人事가 끝나면 신나는 농악가락에 맞추어 줄놀이가 시작된다. 일명 덕석모리나 오방진이라고 하나 어떻게 줄마리와 을진행진등으로 한바탕 줄놀이가 벌어진다.

줄놀이가 끝나고 다시 男性줄과 女性줄이 中央에서 마주친다. 줄이 마주치면서 고놀이가 시작된다. 정말 흥미진진한 고놀이가 벌어진다. 한바탕 男性對女性의 줄이 엉키고 설키고 어울려 놀다가 줄과 줄이 이어진다. 그리고 줄다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줄다리기와 立石줄감기



촌장(村長)의 신호로 줄다리가 시작된다. 농악은 어느때 보다도 열을 올려서 흥겨운 가락이 연출된다. 각기 오색기는 목이 터지라 응원을 한다.

이때 남성줄 선수들이 여성줄편에 몰래 스며들어 장난을 벌인다. 이 광경을 본 금란사는 회초리로 사내들을 마구 쫓아낸다. 그리고 남성 줄머리의 선수들을 회초리로 줄을 당기지 못하게 방해로 놓는다. 남성들이 여성줄에 빠져나가다가 하면 줄머리에서 금란사의 방해로 말미암아 결국 열심히 당기는 여성들에게 남성줄이 패하고 만다. 이렇게 되어 해마다 여성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여성줄의 승리로 돌아가자 온통 환호성으로 가득찬다. 여성이 이김으로써 금년에도 풍년이 든다는데서 더없는 평화스러운 안도감이 있다. 한참동안의 환호성에 뒤이어 농악가락에 맞추어 女性줄부터 立石으로 행한다.

立石에다 왼쪽으로 돌면서 여성줄부터 “동골 동골” 감기 시작한다. 이때도 흥겨운 민요가락이 나온다. 농악과 한테 엉키어 줄을 다감고나면 여성은 서쪽 남성은 동쪽에 흥얼대며 立石을 중심으로 서게되고 바로 이어서 당산제가 시작된다.

줄감기 노래 (선창) 동골 동골 (후창) 위야 허허 동골 동골…… 줄을동골 동골 하게 잘 감자는 뜻이다.
위야 허허…… 입석 지신을 위하여 줄을 감는다는 뜻이며 허허는 입석신이 자기를 위해주니까 좋아서 웃는소리로 풀이한다.

당 산 제



축 문

維歲次 年 月 朔日 辰幼學某敢昭告于

堂山土地之神伏以本里一村今年運數
家家泰平 人人安康五穀登豐六畜蕃殖
謹以請酌性幣祇 薦于神保佑 尚饗

당 산 제

줄이 立石에 다감아지면 바로 제상이 놓아진다. 용기와 같이 서있던 제주(祭主)와 축관이 제상앞으로 나와선다. 집사로서는 남성줄 선수 두사람이 나와서 행한다. 이곳 당산제는 單獻에다 有祝으로 되어있다. 이때만은 농악도 멈추고 엄숙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단헌으로 분향재배, 강신재배, 독축에 이어 계반삼시, 헌다, 철시복반, 철상, 음복으로 끝난다. 立石과 제주를 중심으로 주변에 엄숙하게 서있던 농악대와 선수들도 마음속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일년내내 재액을 지켜주도록 立石에 기원을 올린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나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즉 군무로 들어간다.



군 무

음복을 하면서 군무로 이어진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오직 축원하는 여흥만이 남은 것이다.

女性들은 왼쪽으로 立石을 돌고 男性들은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男·女 가림없이 돌고 돌며 한덩어리가 되어 흥에 겨워서 허튼멋으로 마지막 장면이 벌어진다.

농악도 중중머리 등 자진가락으로 최대한의 멋을 부리며 숨박한 농민들은 농악장단에 발맞추어 그저 축원하고 멋대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대보름 저녁을 지새운다.



입석줄다리기 출연자 명단

김제군 월촌면 입석리 주민 120명

담당부서	성명	성별	담당부서	성명	성별	담당부서	성명	성별	
촌 축 용 영 영 했 했 오	장	박종식	남	농	조명식	남	여	임 경	여
	관	정복열	"	남	나신부	"	"	김진순	"
	기	최승오	"	"	조문찬	"	"	장연희	"
	기	박근배	"	"	강신행	"	"	송진순	"
	기	선병학	"	"	조천곤	"	"	허순섭	"
	불	금석봉	"	"	홍석찬	"	"	노기순	"
	불	정동기	"	"	박은식	"	"	정점례	"
	방	이복동	"	"	김용섭	"	"	김순이	"
	"	고재홍	"	"	노귀성	"	"	오은봉	"
	"	최한경	"	"	홍정수	"	"	김점례	"
	"	이영기	"	"	이기호	"	"	박옥봉	"
	금 했 오	사	이승구	"	"	조봉술	"	"	유환숙
나		남남녀	여	"	박진식	"	"	유봉애	"
조		찬녀	"	"	이수봉	"	"	조순님	"
이		연희	"	"	정진홍	"	"	배기열	"
조		춘자	"	"	정진식	"	"	곽정자	"
김		호덕	"	"	권영휘	"	"	마서운	"
최		종례	"	"	노봉우	"	"	고점순	"
김		신옥	"	"	이상배	"	"	유오목	"
김		도량	"	"	박해순	"	"	김봉례	"
박		순례	"	"	최인규	"	"	윤종림	"
김		종선	남	"	박홍배	"	"	노길례	"
정		광길	"	"	최종태	"	"	권봉순	"
농	김	동학	"	"	온익환	"	"	이삼순	"
	조	석주	"	"	김덕빈	"	"	방덕순	"
	최	남근	"	"	오복순	"	"	김왕녀	"
	박	창규	"	"	전종철	"	"	최복님	"
	한	순길	"	"	이순동	"	"	정말녀	"
	이	판권	"	"	최영만	"	"	함은덕	"
	박	상국	"	"	김선우	"	"	김봉애	"
	이	상금	"	"	이대위	"	"	김준자	"
	조	찬귀	"	"	이해룡	"	"	송금옥	"
	정	상운	"	"	이규광	"	"	신계순	"
	이	한경	"	"	박기운	"	"	정금례	"
	정	호진	"	"	최병철	"	"	박점예	"
방	주섭	"	"	김형남	"	"	김현중	"	
김	동곤	"	"	김용운	"	"	김복녀	"	
김	창용	"	"	김선옥	"	"	함순례	"	
정	동일	"	"	송재구	"	"	유복례	"	
온	백귀	"	여	장봉악	여	"	이이순	"	

수고하신 분들

발굴총지휘 : 정진형 (김제예총지부장)
지도위원 : 오진구 (전북대교수)
지도위원 : 박순호 (원광대교수)
지도위원 : 홍일표 (전북예총사무국장)
지도위원 : 이정훈 (김제예총사무국장)
농악지도 : 이기주 (김제여고교사)